

고용 V자 반등에도 웃지 못하는 이유

재정·일자리·청년알바만 증가... 40대·제조업은 '한파'

홍남기 부총리 고용동향 브리핑

“작년,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성과 생산인구 감소속 이뤄내 뜻깊어 퇴직·구직자 종합대책 3월 마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작년 취업자 증가, 고용률, 실업 등 3대 고용지표가 모두 개선되면서 양적 측면에서 ‘V자형’ 반등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2019년 고용동향 및 향후 정책 방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임금·근로시간 등 고용여건 전반의 뚜렷한 개선이 이뤄지며 고용의 질 성과도 확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40대와 제조업에서의 고용한파, 일자리 증가분의 상당수가 주당 17시간 미만의 초단기 인점은 정부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았다. 정부 고용정책이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통계청이 발표한 이날 2019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12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51만6000명 늘어났다. 이는 5년 4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는 1년 전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고용동향 및 정책방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강신욱 통계청장. /연합뉴스

30만100명 증가해 2017년 이후 2년 만에 30만명대를 다시 회복했다. 지난해 연간 고용률은 전년보다 0.2%포인트 상승한 60.9%로 22년 만에 최고였다. 실업자는 1만명 줄었다.

홍 부총리는 “작년은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의 성과가 가시화한, 일자리 반등의 해”라며 “고용지표 반전은 취업자 증가가 당연시 여겨졌던 과거와는 달리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뤄낸 뜻깊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작년 취업자가 12만8000명 감소해 모든 연령대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나타낸 40대와 관련해서는 “퇴직·구직자에 대한 전수조사에 준하는

분석을 토대로 맞춤형 종합대책을 3월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직업훈련 등 40대 전직 역량 강화 ▲창업 역량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고용환경의 도전요소로 생산가능인구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는 인구구조 변화를 꼽았다.

아울러 산업구조 고도화 등으로 ‘고용 없는 성장’이 불가피한 산업 구조 변화, 디지털·플랫폼화에 따른 일자리 구조 변화도 당면한 어려움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 정확한 고용시장 판단을 위해 취업자 증가폭이 아닌 고용률

중심의 지표 전환을 대비하겠다”며 “서비스와 신산업으로 풀고구를 찾는 동시에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확대에 따른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정책 강화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40대·제조업 ‘직격탄’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특히 40대와 제조업의 일자리는 ‘한파’에 가까웠다라는 평가다.

실제로 지난해 40대 취업자 수는 16만2000명 감소했는데, 지난 1991년(-26만6000명) 이후로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고용률로도 40대의 어려움이 여실히 드러났다. 40대의 고용률은 78.4%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하락

했다. 모든 연령층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다. 2년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40대가 많이 포진한 제조업의 일자리가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21개월째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조선업과 자동차, 반도체 업황 악화 등이 이유로 지목된다.

역대 최고 고용률 이면에는 주당 17시간 미만의 초단기 일자리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도 아쉬움을 남긴다. 이 기간 주당 17시간 초단기 근로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0만1000명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 수 증가분인 30만1000명과 같다.

정부의 재정 일자리, 청년의 아르바이트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산업별로 보더라도 노인 일자리가 속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16만명, 아르바이트 등이 포함된 숙박 및 음식점업 6만1000명으로 취업자 증가에서 1, 2위를 차지했다.

재정 일자리의 최대 수혜자인 60세 이상의 취업자수는 37만7000명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고용률 상승폭도 1.4%포인트로 가장 높았다.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연합뉴스



영하권 추위에 한강 ‘꽂꽂’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변에 물이 얼어 있다. /연합뉴스

취업자 52만명 늘어 증가폭 5년만에 최대

작년 12월 취업자수 2715만명
연간 30만명대... 2018년의 3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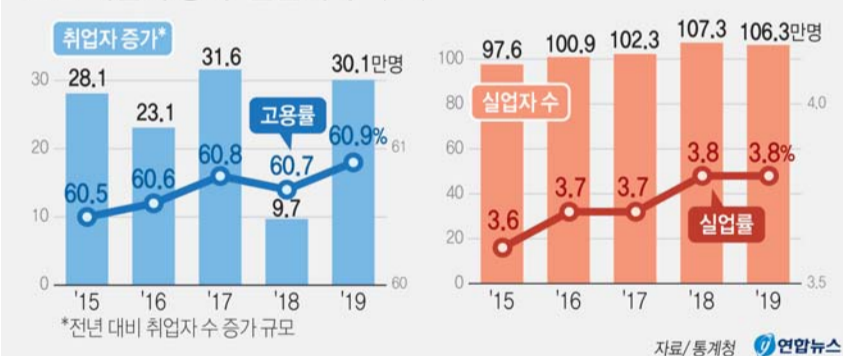
지난해 12월 일자리 증가폭이 50만명을 넘기면서 지난해 연간 일자리 증가폭이 2년 만에 30만명대를 회복했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19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취업자는 2715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51만6000명 늘어났다. 이는 5년 4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취업자는 2712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0만1000명 증가해 2017년 이후 2년 만에 30만명대를 다시 회복했다.

2018년 증가폭(9만7000명)의 3배를 웃도는 수치로, 정부의 연간 목표였던 20만명을 크게 상회했다.

연간 취업자 증가·실업자 수 추이



지난해 취업자 증가폭은 1월과 4월을 빼고 매달 20만명을 웃돌았다. 8월부터 4개월 연속 30만명 이상 증가폭을 이어갔고 12월에는 50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지난해 연간 고용률은 전년보다 0.2%포인트 상승한 60.9%로 22년 만에 최고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

준인 15~64세 작년 고용률은 66.8%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1989년 집계 이후 최고다.

지난해 실업자는 106만3000명으로, 2016년 이래 4년째 100만명을 웃돌았다. 2018년(107만3000명)을 빼면 연도별 비교가 가능한 2000년 이후로 가장 많다. /석대성 기자

하나은행, DLF 손해배상률 최대 65%

배상위원회 열고 자율조정 배상 돌입

KEB하나은행은 15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이하 DLF) 배상위원회’를 개최하고 자율조정 배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이는 지난 14일 금융감독원이 각 은행 앞으로 전달한 ‘DLF 불안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기준(안)’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로, KEB하나은행은 신속하고 공정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날 개최한 DLF 배상위원회의 첫 회의에서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손해배상기준(안)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투자 손실에 따라 40%, 55%, 65% 등의 배상률을 심의·의결했다. 결의된 내용은 영업점 등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해 손님과 합의할 통

해 즉시 배상기로 했다.

DLF 배상위원회에 참석한 배상위원들은 “KEB하나은행의 신속하고 투명한 배상절차가 신뢰 회복으로 이어져 금융소비자보호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상을 통해 신뢰받고 건강한 금융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KEB하나은행의 DLF 배상위원회는 법조계·금융관련 학회·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 6명의 외부 전문위원들로 구성해 투명하고 공정한 자율조정이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KEB하나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약 400여 건의 자율조정 배상 대상 건수에 대해서 판매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등 자율조사를 실시해 신속한 배상을 준비해 왔다. /홍민영 기자 hong93@

삼성전자, 14년째 美 특허취득 2위

LG전자는 6위... IBM, 9262건 1위

삼성전자가 미국 특허 취득 건수로 14년 연속 2위를 차지했다. LG전자도 6위로 상위권에 랭크됐다.

15일 미국 특허정보 업체 IFI 클레임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미국에서 특허를 6471건 등록했다. 전체 33만 3530건 중 1.9%에 해당한다.

2006년 이후 14년째 2위다. 27년째 1

위인 IBM(9262건)에 적지 않게 뒤처지긴 했지만, 3위인 캐논(3548건)보다 2배 가까운 차이를 유지하며 높은 순위를 이었다. 유효 특허건수로는 삼성전자가 7만6638건으로 1위였다. 특허건은 2개 이상 국가에 특허가 등록된 경우로, 특허 등록 건수 1위인 IBM은 특허건으로는 3만7304건으로 2위에 머물렀다.

LG전자도 2805건 특허를 취득하며 전체 6위에 올랐다. /김재웅 기자 juk@

미국 내 특허 취득 건수 상위 10개 기업

